

강진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촉진 캠페인 펼쳐

강진군 여성단체회원 '빨리 받고 빨리 쓰고 경제는 웃고'

강진군은 최근 생활개선회, 어머니포 순이회, 한국부인회, 적십자봉사회 등 9개 여성단체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기 사용을 유도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강진읍시장 일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빨리받고, 빨리쓰고, 경제는 웃고 캠페인'을 펼쳤다고 25일 밝혔다.

강진읍 장남을 기해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강진원 강진군수와 여성단체 소속 회원 30여 명이 함께 시장 안팎에 있는 노점과 상점들을 돌면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지급된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조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장려하는 등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전군민 참여 독려 활동으로 진행됐다.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된 1차 정부지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강진군의 경우 신청초기부터 읍면은 물론 군청 공무원들까지 함께 나서서 마을, 복지시설, 아파트 단지 등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는 방식의 찾아가는 신청제도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높은 조기 지급률을 보였다.

현재까지도 전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99%의 지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예정이라서 추석명절 전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강진군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3차 지원금이 11월 중 한 번 더 지급될 예정이라서 지역 상가와 군민들은 두 차례의 정부지원에 따른 소비가 끝난 직후 일



정 기간 소비위축 현상에 대비하고 연말까지 경기 활성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읍상인회 관계자는 "소비쿠폰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풀리면서 모처럼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군민들께서 소비쿠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장 상인들도 친절과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겠

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이번 전통시장 캠페인 행사 외에도 관내 음식점업소를 이용한 외식 독려, 이장회의, 각종 교육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보성군, 청년 역량 강화 본격 시동

AI·공예·막걸리 빗기 등 8월 31일까지 참여자 신청·접수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오는 9월부터 보성군청년센터가 주관하는 '청년 강사 육성 프로그램'과 'AI 프롬프트 활용 능력 자격증 과정'을 본격 운영해 지역 청년 역량 강화에 본격 시동을 건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청년이 직접 강사가 돼 재능을 나누고, 동시에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형 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 자기 계발과 교류를 동시에 이루도록 기획됐다.

지난 7월 청년 강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최종 3명의 강사는 9월부터 11월까지 가족공예, 도자기 공예, 라탄 공예의 등 실습형 강좌를 운영한다.

강좌당 모집 인원은 ▲AI 프롬프트 활용 능력 자격증 대비반 10명, ▲라탄 공예 24명(회차 6명), ▲가족공예 24명(회차 6명), ▲보성녹차 수제 막걸리 빗기 24명(회차 6명)이다.

접수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2025년 청년센터 프로그램 미참여자

를 우선 선발하고, 온라인 접수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한다. 신청 및 문의는 보성군 청년센터(☎061-853-0969)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9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열리는 라탄 공예(4회), 가족공예(4회) 프로그램은 청년 강사들에게는 실천 강의의 경험을, 수강생들에게는 같은 세대 강사와의 소통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개설되는 'AI 프롬프트 활용 능력(2급) 자격증 대비반'은 9월 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주간,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총 16회에 걸쳐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인재를 강사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미래 기술을 배우는 이번 프로그램은 보성군이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배움과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문기 기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관내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새로운 배움을 즐기고 자기 계발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2025년 하반기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취업·창업 지원 과정부터 여가와 교양을 풍성하게 하는 취미·교양 과정까지 다양하게 준비됐다. 취·창

영광군, 하반기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업 과정에는 ▲화훼장식기능사(필기) ▲온라인 쇼핀 창업반이 개설되며, 취미·교양 과정으로는 △필라테스 △당구 △그리기(연필소묘&채색) △홈미싱(중급) △꽃꽂이 등 총 2개 분야 7개 강좌가 마련된다.

모집 인원은 총 105명이며, 영광군에 주소를 둔 여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영광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영광군 여성문화센터(☎353-5253)]에 방문 신청

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과정까지 과정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교육 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세부 수업 시간과 내용은 영광군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문화센터(☎353-5253) 또는 영광군 가정행복과(☎350-5546)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이현식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화순군, 극한 호우 대비 빗물받이 안내판 설치 완료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빗물받이 안내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로 침수 시 막힌 빗물받이를 청소하고, 이물질 및 퇴적물을 제거하여 우수(雨水) 배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이번 사업은 주요 시가지 및 상습 침수 구역을 중심으로 빗물받이 안내판 50개소를 설치하였다.

군은 이번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시 도로 침수, 차량 정체, 주택가 침수 등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군민 제보 및 민원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실제 불편을 겪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김중환 기자



함평군, 민생 회복 전력... 호우 피해 소상공인 지원 나서

전남 함평군이 최근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민생 회복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함평군은 25일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민생 회복 소비쿠폰 소비 촉진 캠페인"이 지난 22일 함평전지전통시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이달 3일 발생한 호우 피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함평군을 비롯해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6개 관계기관 직원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조기 사용을 독려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진도군 '주민과의 직접 소통, 찾아가는 사랑방' 시작

진도군은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다양한 고충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주민 소통 사랑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8월 25일 오후에 진도읍의 두정, 용두, 남동, 남흥, 수유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등 주민들과 직접 소통했다.

이번 행사는 군민이 직접 체감하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사랑방을 운영할 예정이다.

진도군은 주민과 행정 사이의 소통 창구인 '찾아가는 주민 소통 사랑방'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어 군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책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진도/오재명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